게임 시나리오

배경이야기: 무인의 혼

-고려의 무인, 을동

이름의 모티브 :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읍 영역에 있던 폐동. 본래 봉산군 초구면의 지역으로서 새풀(억새)이 무성하던 마을이라 하여 을동

문명의 파괴자이자 잔인한 정복자, 몽골과의 전쟁으로 고려는 초토화가 되었다. 고려의 무신정권과 정규군들은 강화도에 박혀 나오지 않았고, 강화도 이외의 지역은 고려의 의병들이 생존을 위하여 몽골군과 싸우는 상태였다.

이런 시대에서 운명이었는지 타고난 무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을동이다. 을동은 억새가 무성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힘이 세고 민첩했으며 무기를 잘 다룰줄 알았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의 가족은 몽골에 의해 잔인하게 죽었고, 그 날 을동은 복수를 위해 싸우면서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을동은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의 실력을 깨달았지만 무턱대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무인이 아니었다. 그는 몽골과 싸우기 위해 불타는 복수심을 자제 할 줄 알았다. 지역의 의병들과 섞이면서 몽골과 항전해나갔다. 을동의 실력은 1대1 무사간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아비규환이 벌어졌을 때 생존하면서 최대한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몽골의 얼굴탑(시체의 얼굴을 쌓아 올리는 탑)을 볼 때마다 복수심과 실력을 더 키워갔다.

그러나 그 역시 한 낱 인간에 불과했다. 몽골이라는 큰 대세를 상대로 애초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몽골군은 을동을 붙잡는데 성공했고, 그 동안 수많은 몽골인을 죽인 을동을 그냥 죽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유희와 복수를 위해 을동을 북방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을동은 끝내 북방에서 숨을 거뒀고 그의 시체는 버려졌다. 그렇게 을동은 귀신이 되어 수백년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운명의 무녀를 만나기 전 까지말이다.

.

**#1. 화면:** 소진과 소진을 인도하고 있는 영혼이 허허벌판에 앉아 있는 무사에게 간다**.**

**#1. 화면 텍스트:**

소진: 당신이 무사인가요?

을동(무사) : ………….(대답이 없다)

소진 : 무사여 대답해주세요. 저는 부모를 외적에게 잃어 한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복수와 원한을 풀 초인에 대해 들었어요. 그 초인의 존재를 무사께서 아신다고 어떤 영혼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어 인도해주세요.

을동 : (소진을 보며) 하하하하… 어린 무녀여. 그 초인은 이세상에 없다

소진 : (무사를 응시하며) 무사님. 저는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한을 풀어야 사라질거예요. 저는 무녀입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그 한을 풀어 드리겠어요.

을동 : 네가 내 한을 푼다고?. 그 초인의 존재를 나 또한 살아 있을 적에 찾아 헤메었다. 그러나 그 초인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인은 귀신의 세계에 머물러있다. 귀신들은 그 초인을 만날 수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만날 수 있는데. 귀신의 세계에 들어갈 인간이 있는가? 거기서 수많은 귀신들이 인간에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 세계에 가고자 노력하였고 수많은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를 들어갔건만 결국은 나 역시 귀신이 되어 이렇게 떠돌고 있다.

소진 : 전 이미 살아도 산 몸이 아닙니다. 피눈물로 일본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맹세하였고 그것을 이룰수 만 있다면 귀신의 세계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초인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을동 : 무녀, 정녕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다. 내 혼을 한번 받아서 버틸 수만 있다면 내 직접 너를 인도하겠다.

**#2. 화면:** 을동은 소진에 빙의한다. 소진의 육체뒤에 큰 무사의 영혼이 겹쳐져 있다. 그리고 소진의 몸이 자신을 받아 들 일수 있는 것을 확인 후, 마침내 귀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초인을 찾으러.

**#2. 화면 텍스트:**

을동이 빙의한 소진: (을동과 소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기껏 어린 무녀인데, 내 혼이 받아진다니 믿을 수 가 없구나. 무녀 너는 정말로 귀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세계는 이곳과 다르다.

소진 : 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사님…

을동: 좋다. 무녀, 내가 인도하마. 그러나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후회해도 멈출 수 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니……